

도민들이 기억할 '나눔의 무대'

가수 박상민, 'LOVE' 콘서트 성황
도내 장애인·소외계층 등 특별 초청

검은 선글라스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무대 위에서는 강렬한 허스키 보이스로 관객의 심금을 울리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조용히 장애인과 소외된 우리 이웃을 품어온 가수 박상민(사진)이 전북인들에게 또 한 번 깊은 울림을 남겼다.



지난 4일 밤, 전북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주)파스뮤직엔터테인먼트 주최 주관의 (2026 박상민 LOVE 콘서트)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전북도민들에게 '나눔의 무대'로 기억됐다.

이날 공연에는 전복의 사랑의 열매와 두드림장애인사회회적협동조합 등을 통해 장애인과 소외계층 등 약 600여 명을 자신의 공연에 특별히 초청해 공연을 해서 큰 감동을 주었다.

무대에 오른 박상민은 대표곡 '해바라기'를 비롯해 '충년', '내게로 가는 길', '거짓말', '이별의 약속' 등 수많은 자신의 히트곡을 2시간 넘게 열창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깊고 단단했지만, 이날 공연의 진정한 감동은 노래 그 자체를 넘어선 '진심'에 있었다. 관객석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오늘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트가 되길 바란다"고 전한 그의 한마디는 공연장을 조용한 울림으로 채웠다.

그의 공연에는 가수의 두팔 바깥쪽 양과 박소운 양이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여 많은 관객의 극찬을 받아 감동을 더했다.

특히 이번 무대는 그의 남다른 전북과의 인연 속에서 더욱 의미를 더했다. 그의 어머니 고희영 익산이어서 지금도 외삼촌과 이모님 등 많은 가족이 전북에 살고 있어서, 전복은 그에게 단순한 공연지가 아닌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연 내내 "전복이 자신에게 고향같은 곳이자 늘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이라며 전북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 4일 밤, 전북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주)파스뮤직엔터테인먼트 주최 주관의 (2026 박상민 LOVE 콘서트) 공연서 가수 박상민이 전북 장애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상민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이어온 선행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40억 원이 넘는 기부와 더불어 각종 자선 공연, 무료 출연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 왔다.

이러한 행보는 '기부 천사'로 불리는 가수 김장훈에 견줄 만큼 꾸준하고도 진정성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공연 역시 단순한 흥행이나 수익을 넘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 특별한 무대였다.

공연장을 찾은 한 장애인은 "노래도 감동이었지만, 마음을 나누려는 가수의 진심에 더 큰 울림을 받았다"고 전하며 "오랜만에 가수의 공연을 통해 한때나마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행복했다"며 박상민 가수의 선행에 대해 감사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박상민은 "문화 예술 분야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며,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의 공연 요청이 오면

무조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장애인 홍보대사도 맡고 있어 더 잘해야 된다는 의무감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끝으로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꼭 힘내 시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장애인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우위에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봉사자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2시간이 훌쩍 넘은 오랜 시간의 공연으로 인해 피곤함이 많을텐데도 공연장 입구에 나와서 장애인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고 격려의 말을 전하는 그의 모습은 큰 감동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허스키한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보다 더 깊어지는 사랑을 향한 넓은 마음. 박상민의 노래는 여전히 누군가의 가슴에 감동을 주고 있었고, 그의 삶은 말없는 조용한 실천으로 힘되고 거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만호 기자



건협 전북지부, 완산칠봉 꽃동산서 환경정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본부장 엄진영, 이하 건협 전북지부)는 봄철 나들이객 방문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7일, 전주시의 대표적인 봄꽃 명소인 완산칠봉 꽃동산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인 '플로깅'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건협 전북지부 임직원과 메디체크어머니봉사단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봉사자들은 완산칠봉 꽃동산 산책로와 진입로 일대를 구석구석 살펴며 버려진 플라스틱, 비닐 등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꽃구경을 위해 방문한 시민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병행해 지역사회의 환경 인식 개선에도 힘을 보탰다. /오상근 기자



정읍시니어클럽 실버캡스, 등굣길 홍보 운동

정읍시니어클럽(관장 박환수) 어르신들이 등굣길 안전 지킴이로 나섰다. 클럽 소속 '실버캡스' 사업단은 7일 민관 합동 교통안전 홍보 운동(캠페인)을 펼치며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정읍시니어클럽은 지역 어르신들이 사회 참여를 통해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중 공익 활동인 '실버캡스' 사업단은 관내 13개 초·중학교에 총 2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차량 통행 유도, 보행자 보호, 환경 정화 활동 등을 병행하며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수칙이 담긴 홍보 전단지 등을 직접 제작해 배부하는 등 시민 의식 개선 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그 일환으로 7일 초등학교 인근 도로변에서는 정읍경찰서, 학부모, 교직원, 사업단 참여 어르신 등 100여명이 함께 하는 합동 교통안전 홍보 운동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불법 주차차 금지 등 교통 법규 준수를 집중적으로 알리며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이를 통해 교통 약자 보호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 전반에 정착한 안전 문화가 자리 잡도록 유도해 등·하굣길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개강식

남원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7일, 미취업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 기반 AI·SW 전문강사 양성 과정과 정리수납 컨설턴트 창업 과정 참여자 35명을 대상으로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 과정은 디지털 교육 분야와 생활밀착형 전문 직종을 아우르는 직업교육 훈련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지역 여성들에게 다양한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AI·SW 전문강사 양성 과정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AI·SW 교육 수요 증가에 맞춰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프로그래밍, 블록코딩, AI 활용 교육,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교수법 등 실무 중심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교육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리수납 과정은 정리수납 전문 자격 취득과 함께 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정리수납 자격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습, 공동체 창업을 위한 소통 능력 향상 및 사업구상 교육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한편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개 과정 교육 종료 후, 취업 연계와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20-5280~5)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위생관리 어려움 덜어드려요... 취약계층 방역소독 지원 '맞손'

남원 동충동, 방역업체 치움과 협약 체결
이달부터 12월까지 방역소독 서비스 제공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미라)는 4월 7일 경제적 여건 등으로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업체 치움(대표 오종하)과 '취약계층 방역소독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동충동은 이번 협약으로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방역소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치움은 가정 내 해충 방제 및 위생관리 소독을 직접 수행하며 대상 가구의 위생 상태에 따라 맞춤형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한편 긴급 방역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한편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는 '1일 1가구 소독 행정'을 위생 취약가구를 발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 지원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미라 동충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보건의 날 기념식·힐링 교육 진행

남원시는 7일 남원시보건소 보건교육실과 운봉 일원에서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내 소통 강화를 위한 기념행사와 힐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무원, 공무원직 기금관리자 등 보건소 직원 약 100명이 참석해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공보건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오전 10시 30분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진행됐으며, 유공 공무원 13명과 민간인 유공자 3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함께 부시정의 기념사, 부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직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코칭 전문가 특강과 함께



백두대간 숲체험, 작은 음악회, 족욕 체험, 웃음치료 등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지방법원, 범죄예방진단팀 간담회 개최

전북지방법원(위원장 이연주)은 7일 도청 공연장동 세미나실에서 전북경찰청 범죄예방진단팀(CR)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경찰청 소속 범죄예방진단팀 18명이 참석해 지역별 범죄 특성과 예방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도민 중심의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사업과 자치경찰 특화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자율순찰로봇 도입과



영상센서를 활용한 불법촬영 감지 등 과학적인 공모사업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또한 간담회에 앞서 범죄 예방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찰관 2명에게 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전북지방법원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도민 의견을 치안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만호 기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초학습지원 성금 기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는 7일 부안군청 부군수실에서 이음지역아동센터에 이주배경아동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성금 14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학습 환경의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탁된 성금은 교재 구입비, 강사비 등 기초학습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학습 환경 속에서 자신감을 키우고, 또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안=김익선 기자



군산 조촌동 지사협, 취약계층 에어컨 청소 지원

군산시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도영, 민간위원장 임세일)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4월 한 달간 '에어컨 청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에어컨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총 10가구를 선정해 에어컨 내부 청소 및 점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사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냉방 효율을 높이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체는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복지사자대해소어 협을 방점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의 생활 여건 변화를 살펴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군산=김만호 기자